



# 회사 브랜드 품격에 맞는 안전, 마음 다스리는 안전

르노삼성자동차 양평사업소

취재 | 최종덕 기자

## 가장의 사고는 가족의 아픔

안전업무를 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 초년생이라 늘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합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안전업무는 해도 끝이 없고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르노삼성자동차라는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은 곧 가정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업무는 곧 직원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선행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에서 가장의 죽음이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에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위해 안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해야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일터에 뿌리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종 관 대리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사후 관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의 완성도가 높아 자동차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은 하지만 사후관리를 하는 이들이 없다면 많이 망설여질 것이다. 그러나 중고시장에서 마저도 르노삼성자동차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하지 않을까?

르노삼성자동차에는 신차판매에서부터 정비 그리고 판금도장까지 하는 사업소를 PS라 한다. 오늘 찾은 양평사업소도 이에 해당하는 PS,

이곳에서는 총 118명이 종사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업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며 안전을 중시 여긴다.

자동차로 생산되는 프로세스도 없이 모든 작업이 정비사 손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무재해는 누구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일터, 그 안에 무언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다.

### 안전, 교육으로부터 시작

양평사업소의 안전은 안전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 1회 시행하는 법적 안전교육 외에도 이들이 공들이는 안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강성심병원이 안전과 보건에 있어 매월 방문할 때면 교육을 하고 주간회의, 월간회의 그리고 분기회의에서는 서비스장과 파트장이 중심이 되어 이슈가 되는 안전사항이 전달된다.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판금작업장에서는 유기용제에 대한 MSDS를 모든 작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모든 교육에 있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르노삼성자동차 양평사업소는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아차사고 사례

정해진 생산 프로세스와 정해진 Tool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 일을 하는 작업 특성상 사고유형도 많고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위험한 상황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위험 도출, 즉 아차사고에 대해서도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종관 대리는 책상에서 그동안 관리해오고 있던 사례집을 가지고 온다. 파트장이 주관하에 작성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차사고 사례는 자체 네트워크킹상에서 공유함으로써 양평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서도 인지된다. 르노삼성자동차 사업소에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차사고가 파트장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 "파트장이 중심이 되어 아차사고 사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차사고 관리가 파트장의 담당 업무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종관 대리는 말하며 "아차사고는 곧 르노삼성자동차가 무재해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라고 말한다.

###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었다

사업소 어딜 가도 흔히 이곳이 차량을 정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정비공정을 가나 도급이나 판금 작업 장소를 가나 하나 같이 느껴지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을 인간관계로 여기고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안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회의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이야기를 나오게 하고, 부드럽고 융화적인 관계로 맺어진 이들에게서 전혀 마찰 같은 찾아볼 수 없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이끌어가는 안전, 이것이 바로 르노삼성자동차 양평사업소가 추구하는 21세기 안전이었다. ☺